

일본 유행가 어휘의 어종에 관한 연구

-1925년부터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김희정*

quay1109@hanmail.net

Contents

- | | |
|-----------|---------|
| 1. 들어가며 | 2. 연구대상 |
| 3. 어종(語種) | 4. 나오며 |

Abstract

本稿は1925年から1960年までの普遍的な情緒及び時代相などを考慮して流行歌の語種別の分析を通じて流行歌に表れる語彙の言語的な特性を考察した。

流行歌の語種別の分布を調べてみた結果、前期と後期は全部「固有日本語>漢字語>外来語>混種語」の順で、固有日本語の比率が一番高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特に、雑誌との比較を通じて流行歌には固有日本語の比重が高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これは音声を通じて歌詞の感情と意味が易しく伝達されるために他の語種より固有日本語の比重が自然的に高くなったと理解できた。

漢字語は明確な意味の伝達力があって「満洲、希望、勝利」などのように概念と雰囲気을 전달するキーワードで主に使われていた。漢字語は少数の単語で数多い固有日本語と確実に区別され、聞き手に雰囲気と意味を感知させ、表記上の視覚的な役割을 外来語と共に担当している。前後期の流行歌の中一番多く表れた漢字語は「愛」で、その他に「僕・気・希望・未練・世界・青春・本当」などが高い比重を占めている。これは流行歌が主に青春男女のできなかった恋に対する哀傷感と思い出などを主な素材にしているからだと思われる。特に、前期が後期より漢字語の比重が高い。これは「大和心、天皇陛下、皇国、尽忠、武勲、戦車、万歳、日章旗、銃剣、軍馬、無敵、戦闘、勲功、落下傘」などを通じて祖国と天皇に対する忠誠と戦争での勝利などの啓蒙的な内容を表している主題をもっと効果的に表出するために意味の伝達力が優秀な漢字語が多く使われたからで、当時の時代的な要求が反映されたと見られる。

外来語の場合、後期が前期よりその比重が高い。これは終戦と美軍占領などの外勢の影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원, 일본어학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KRF-2007-362-A00019

響に因する新しい文物流入で既存の固有日本語と漢字語ではその意味を全部表わせず、新しい概念を表わす外来語が増加したからである。このため後期の外来語は日本が多様な国から外来文物の収容を積極的に行ったことを表している。前後期を通して表れた外来語は『パラダイス』だけで、苦しい現実と遊離される世界に対する希求などを表出している。

今後はこの研究結果と共に固有日本語、混種語との語種別の分析を通じて流行歌に表出される語彙の特徴と変化様相などをもっと綿密に考察したい。

Key Words : 語種, 漢字語, 外来語, 固有日本語, 意味, 概念

1. 들어가며

본고는 1925년부터 1960년까지의 보편적 정서 및 시대상 등을 고려하여 유행가에 담겨지는 어휘의 언어적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의 형식적인 측면 중 어종(語種)의 양상을 고찰하여 유행가의 어휘로 표현되어지기 위해 갖는 특성 및 다른 어휘들과 변별되는 속성 등을 면밀히 알아보기로 한다.

어종(語種)은 개별 어휘들의 기원을 근거로 분류한 것으로, 일본어의 어종구분은 크게 고유어와 차용어로 나눌 수 있고, 차용어는 다시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되고 고유어와 차용어가 합성된 혼종어로 나눌 수 있다. 즉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의 4가지로 어종구분을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단어가 고유어인지 차용어인지, 차용어라 해도 중국으로부터의 차용인지, 서양어로부터의 차용인지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언어의식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에는 어휘적인 특성상 외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종별 분류고찰을 통한 유행가 어휘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도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행가 어휘의 어종별 고찰연구는 어휘체계의 시대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유행가의 어휘체계에 나타난 변화로 다양한 외래어의 증가 실태를 확연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휘의 어종별 분석을 통해 유행가에 반영된 사회·문화·역사적 정황과 대중의 심리 등을 고려하여 유행가의 어휘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당시 대중들의 진솔한 삶과 공유된 사고방식이 반영된 연구 자료로서 유행가를 채택하였고 분석 대상 작품들은 일본의 1925년부터 1960년까지 각 시대에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곡들이다.¹⁾ 본고의 자료로는 『新版 日本流行歌史 上, 中, 下』(社会思想社, 1997) 중 총 690곡이다. 이 곡들은 일본의 가요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고 수록 작품들의 발표 연도와 작사자, 작곡자, 가수를 명기하고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일본 유행가의 곡수와 어휘량은 다음의 <표1>과 같다.²⁾

<표1> 일본 유행가의 곡수와 어휘량

	시기	곡수	총출현어수	별개어수
일본	전기(1925-1944)	397	22665	4923
일본	후기(1945-1960)	293	13905	2957

일본 전기의 유행가는 모두 397곡으로 사용된 어휘의 총출현어수는 22665어이고, 별개어수는 4923어이다. 일본 후기의 유행가는 모두 293곡으로 사용된 어휘의 총출현어수는 13905어이고, 별개어수는 2957어이다.

일본 유행가에 나타나는 어휘의 어종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역사적 전환기

1) 본고에서는 음반으로 생산되어 상업성을 띤 성인 대상의 노래인 유행가로 한정하기로 한다. 판소리, 민요, 잡가, 시조 등의 구비 전승되는 구전가요와 음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민중가요는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구전가요는 활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사나 발행연도를 알 수 없고, 특정집단에서 즐겨 부른 동요나 가곡 등은 대중의 인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본고는 '단어단위'의 조사단위를 설정하여 유행가에 쓰인 어휘의 양을 계량하였다.

에 해당하는 1945년을³⁾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각각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어종(語種)

유행가에 담겨지는 어휘의 언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휘의 어종면, 어구성면, 품사면 등의 형식적인 측면 중 본고에서는 어종에 한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행가의 어휘로 표현되어지기 위해 갖는 특성과 다른 어휘들과 변별되는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유행가의 가사는 입을 통해 불리는 음성 언어적인 특징으로 구어체(話し言葉)에 속하면서 동시에 반복, 도치 등의 문장 구조적인 특징으로 문어체(書き言葉)에도 속한다. 그러나 어종별 어휘량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2>와 같이 고유일본어의 비중이 높은 구어체(話し言葉)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잡지와 유행가의 어휘를 비교하여 보면 유행가 어휘의 고유일본어(和語)의 비율이 높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고 한다.⁴⁾ 이는 유행가의 정서와 심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분위기와 개념을 전달하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지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유행가에서는 고유일본어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⁵⁾

일본 유행가 어휘의 어종분포를⁶⁾ 살펴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전기에는 「고유일본어(70%)>한자어(22%)>외래어(6%)>혼종어(2%)」의 순이고, 후기에는 「고유일본어(72%)>한자어(16%)>외래어(8%)>혼종어(4%)」의 순으로 전후기 모두 고유일본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에는 후기에 비해 한자어의 비중이 6%나 높은 반면에 고유일본어, 외래어, 혼종

3) 1945년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사회상, 정치상, 문화상 등을 이전과 달리하는 역사적 전환기로 볼 수 있으므로 서술의 편의상 1945년 이전을 전기(前期), 1945년 이후를 후기(後期)라 지칭하기로 한다.

4) 中野洋(1982) 「流行歌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明治書院, pp.257~307는 잡지와 노래가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을 담고 문자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있다.

5) 佐竹秀雄(1981) 「和語・名づけ・流行歌」 『言語生活』 359, 筑摩書房, pp.49~52

6) 일본어의 어종 판단을 위해서 『岩波 国語辞典』(1989)의 기준에 따라 준용하였다.

어가 각각 2% 가량 모두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본고에서는 한자어와 외래어에 관해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로 한다.⁷⁾

〈표2〉 일본 유행가와 잡지 어휘의 어종(별개어수)

품사	전기일본(%)	후기일본(%)	일본잡지(%)
고유일본어	70	72	36.7
한자어	22	16	47.5
외래어	6	8	9.8
혼종어	2	6	6.0
합계	100	102	100

3.1 한자어

일본 유행가 어휘의 어종별 분포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위의 <표2>와 같이 전기가 후기보다 6%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 유행가 어휘의 특징으로서 조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 전쟁에서의 승리 등 계몽적인 내용을 담지한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의미 전달력이 뛰어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결과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기와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상위 30위까지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

愛>日本>希望>僕>氣>本當=苦勞>生命=世界>青春>坊=滿洲=意氣>勝利>兵隊>桔梗>出船=男兒=大地=帽子>未練=大事=萬世=千里=太鼓=皇國=高嶺>平和>音頭=他國>澆刺>一杯>太平洋>山河>最後>一路>落葉>荒野>歡

7) 고유일본어에 관한 고찰은 김희정(2001)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1945년부터 1960년까지-』 『日本語學研究』 第3輯, 韓國日本語學會, pp.53~70와 김희정(2002) 『日帝強占期以後의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日本語學研究』 第6輯, 韓國日本語學會, pp.31~42를 참고.

喜>戦地>大陸>無事>露營>男子>人情>銀>意志>戦車隊

<후기>

愛>僕>氣>希望=未練=毒>牧場=汽笛>世界>青春>元氣>原爆=歌声=本
当>毒素>小経=労働者=野球>今夜=出船>雁>山脈=小憎=駅=写真=純情=郵便
馬車=一声>銀>一番>汽車>晩>未来>天国>苦勞

전후기 모두 「愛」가 가장 많고, 그 밖에 「僕, 氣, 希望, 未練, 世界, 青春, 本
当」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행가가 주로 청춘 남녀 개개인의 이루
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상감과 추억 등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전기에만 나타나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어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강인한 남성에 대한 기대를 나
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男兒, 航空隊, 皇軍」 등이 있다.

男兒 (強く 雄雄しい 若松に 匂う 暁 宇品港(うじな) ゆくぞ 波風 岩も裂く 船
の男兒の心意氣 ああ 特軒の心意氣『特軒の歌(1944)』)

航空隊 (銀翼連ねて 南の 前線 ゆるがぬ 守りの 海鷲たちが 肉弾 砕く 敵の
主力 栄えある われら ラバウル 航空隊『ラバウル 海軍航空隊(1943)』)

皇軍 (讃えよ 空の神兵を 神兵を 肉弾粉と 砕くとも 撃ちてしまぬ 大和魂
わが丈夫は 天降る わが皇軍は 天降る わが皇軍は 天 降る『空の 神兵(1942)』)

조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大和心, 天皇陛下,
皇国, 尽忠, 武勳」 등이 있다.

大和心 (君の血潮は 満洲の 赤い夕陽に 色添えて 大和心の花さくら ぱっと
散ったと 書こかしら『ああわか戦友(1937)』)

天皇陛下 (思えば 今日の戦いに 朱に 染って にっこりと 笑って死んだ 戦友が
天皇陛下 万歳と 残した 声が 忘らりよか『露營の歌(1937)』)

皇国 (戦えり 戦えり わが つわものらは 皇国の興廢を いまぞ 身に 負いぬ 傲

れる イギリス 東洋艦隊を すさぶ 波に 沈め去りぬ『英国東洋艦隊潰滅(1941)』)

尽忠 (神か人かや 身を捨てて 千古に徹る その命 何をか哭かん 尽忠の ああ 荒御魂 火の柱 地軸も裂けよ 艦(ふね)ともに かちまち 砕く 敵主力『ハワイ 大海戦(1941)』)

武勳 (ああ この天地 この山上に 明日は 屍を さらそとままよ 魂魄 永く 武勳 を とどめ 神州男児の名を 挙げん『月下の吟詠(1938)』)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戰車, 万歳, 日章旗, 銃劍, 軍馬, 無敵, 戰鬪, 勳功, 落下傘」 등이 있다.

戰車 (この時すでに 地に 臥して息絶ゆと見し 傷兵ら "友軍きたる 戰車隊! 戰車ぞきたる『幻の戰車隊(1939)』)

万歳, 日章旗 (国を發つ 日の万歳に しびれるほどの 感激を こめて振ったも この腕ぞ 今こそ腕に 長城を 越えてはためく 日章旗『皇軍大捷歌(1938)』)

銃劍 (散れよ 若木の桜花 男と生まれ 戦場に 銃劍執るも 大君の為 日本男子の本懐ぞ『軍国の母(1937)』)

軍馬 (今日の激戦に 敵弾あまた 身に 受けてたおれし 軍馬よ 我が 黒馬よ 許せ『黄昏の戦線(1937)』)

無敵 (皇国に 捧ぐる 雄雄しき命 無敵のつばさよ 澁刺挙げ 鬪志は 尽きぬ精銳 われら『燃ゆる大空(1940)』)

戰鬪 (戰鬪する 身はかねてから 捨てる 覚悟でいるものを 鳴いてくれるな 草の虫 東洋平和のためならば なんて 命が惜しかろう『露宮の歌(1937)』)

勳功 (壮烈 義烈 尽忠の至誠に 燃ゆる 勳功は 実に 大山の名のごとく 万古不朽に 聳ゆらん『祖国の護り(1935)』)

落下傘 (百千の真白きバラの花模様 見よ 落下傘 空に 降り 見よ 落下傘 空に 征く 見よ 落下傘 空に 征く『空の 神兵(1942)』)

당시 유행가의 공간적 지표가 되는 중국과 동아시아 등을 나타내고 있는 한 자어로는 「滿洲, 太平洋, 東洋」 등이 있다.

滿洲 (ハアー またも 雪空 夜風のさむさ 遠い 滿洲가 エー 滿洲가 氣にかかる 『滿洲想えば(1936)』)

太平洋 (海の民なら 男なら みんな 一度は 憧れた 太平洋の黒潮を とともに 勇んで行ける 日が 来たぞ『太平洋行進曲(1939)』)

東洋 (東洋平和の為ならば 我等が命捨つるとも 何か惜しまん 日本の生命線はここにあり『満洲行進曲(1932)』)

이 밖에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희구를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自由, 正義, 平和, 理想」 등이 있다.

自由 (われらは燃ゆる炎 圧制を砕く鎚 自由は わが旗印 わが聖なるスローガン 『コミュニストのマルセイエーズ(1930)』)

正義 (前進 前進 どこまでも 我等は 正義の旗かざす ぬかるみ アジアを巡るとも 邪惡のとりでは なおも 衝く『涯なき 泥濘(1938)』)

平和 (ふもとをめぐる 人の世の歴史は つねに 変れども 山は 平和と夢の郷 ああ 高原の月 冴えわたる『高原の月(1942)』)

理想 (懐かしのなつかしの丘を 越えて仄ぼのと 胸の理想 語りつつ いざもろともに 朗らかに 行こよ『青春の丘(1939)』)

후기에만 나타나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을 비참하게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原爆, 戦争, 孤児」 등이 있다.

原爆 (ふるさとの街やかれ 身よりの骨うめし 焼土に 今は 白い花 咲く ああ 許すまじ 原爆を三度 許すまじ 原爆を われらの街に『原爆許すまじ(1954)』)

戦争 (いぬふぐりを忘れない くにさんを忘れない ずっと 戦争の悲しさを忘れない 戦争が起きらんようにする『いぬふぐり(1955)』)

孤児 (親がなければ 孤児の歌もかなしや 片羽鳥 顔で笑って 心で泣いて行くぞ 嵐が 俺を待つ『長崎エレジー(1947)』)

노동쟁의와 선거, 투표 등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労働者, 公明選挙, 万国, 権利, 一票」 등이 있다.

労働者 (太陽は呼ぶ 地は叫ぶ 起てたくましい 労働者 働くものの紅い血で 世

界をつなげ花の輪に われら未来を語るもの世界を一つに結ぶ もの『世界をつなげ
花の輪に(1947)』)

公明選挙 (住んで住みよい 好い国を 暮して明るい 好い国をつくる みんなの
ところから それは公明選挙から『公明選挙の歌(1957)』)

万国 (歴史もないが 메デーの血で染められた この旗は ああ 万国の労働者
団結せよと叫んでる『晴れた五月(1950)』)

権利, 一票 (誰に 遠慮がいりましょか 正しいところで 選ぶなら 貴い 一票 こ
の権利 好い国 好い街 つくるため『公明選挙の歌(1957)』)

열차와 배 등의 당시 주요한 교통수단을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三等車, 機
関士, 特急, 停車, 郵便船, 発車, 機関士, 郵便馬車, 信号灯』 등이 있다.

三等車 (駿河湾 仲をとりもつ 展望車 沼津食わずの三等車 東京 京都 大阪
ウーポポ『僕は特急の機関士で(1951)』)

機関士, 特急, 停車 (ボクは特急の機関士で 可愛い娘は 駅毎にいるけど 三分
停車では 키스するヒマさえありません『僕は特急の機関士で(1951)』)

郵便船 (海をへだてた 二つのところ 思い通わず たより船 いとし あの娘も み
かんの木蔭 待っているだろ 小島通いの小島通いの郵便船『小島通いの郵便船(1955)』)

発車 (東京の バスガール 発車オーライ 明るく 明るく 走るのよ『喜びも 悲しみ
も(1957)』)

連絡船 (汽笛ひと声 汽笛ひと声 涙の波止場に わたし一人を捨ててゆく 連絡
船よ『連絡船の唄(1951)』)

郵便馬車 (南の丘をはるばると 郵便馬車がやってくる うれしい便りに乗せて
ひずめのひびきも かるく 耳をすましてごらんなさい『憧れの郵便馬車(1951)』)

信号灯 (若い二人は 行く 先は 信号灯が 知ってるはずさ 恋は 苦手の淋しがり
やだ いかすじゃないか 西銀座駅前『西銀座駅前(1958)』)

전쟁복구로 인한 국토 성장과 도로 건설 등을 나타내고 있는 한자어로는 『第
二国道』 등이 있다.

第二国道 (つらい恋なら ネオンの海へ 捨ててきたのに 忘れてきたに バックミ
ラーに あの娘の顔が 浮ぶ 夜霧の ああ 第二国道 『夜霧の 第二国道(1957)』)

이 밖에 종전 후의 애상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哀愁」와 고도성장으로 인한 삶의 여유 등을 나타내고 있는 「記念, 写真, 観光」 등이 있다.

哀愁 (霧がきょうも 降る 忘れぬ 瞳よ 呼べど並木に 消えて ああ 哀愁の街
に 霧が 降る「哀愁の街に 霧が降る(1956)」)

記念写真 (今日は 会社のピクニック 記念写真は 牀の茶屋で 社長に 部長に
課長さま あっち向いて こっち向いて「ボクはアマチュアカメラマン(1951)」)

観光 (みどりの谷間に 山百合ゆれて 歌声 ひびくよ 観光 バスよ「高原列車は
行く(1954)」)

후기에 들어 한자어는 전기에 비해 양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전쟁 등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인한 애국과 전쟁에 대한 승리의 다짐 등을 표출하는 한자어 대신에 개인의 권리와 경제성장과 발전상 등을 나타내는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외래어

일본 유행가 어휘의 어종별 분포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앞의 <표2>와 같이 후기가 전기보다 2%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전과 해방 등으로 인한 외세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물의 유입으로 기존의 고유어와 한자어로는 그 의미를 전부 나타낼 수 없기에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외래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기의 외래어는 일본이 다양한 나라로부터의 외래문물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기와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상위 20위까지의 외래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

ダガジグ>シャン>グッド>パイパイ>コットン>上海>キャンプ>タンゴ>パン>アジア>ハイド>マドロス>マロニエ>ツレラトレ>キネマ>バンジョー>パリ>チンライチンライ>バレンシア>パラダイス

<후기>

パイプ>シュ>リル>ブギウギ>夜来香>レイホー>マリモ>ササ>トンコ>ネオン>ハイノ>ビル>ベサメ>ドレス>パラダイス>テンツルシャン>チャイナタウン>ポルカ>ハイホー>サンドイッチマン>マリア>ブルース

전후기 모두 많이 나타나는 외래어는 「パラダイス」뿐으로, 이를 통해 힘든 현실과 유리된 세계에 대한 믿음과 회구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외래어가 한자어에 비해 공통어휘가 적은 까닭은 새로운 개념이나 전문적인 지식, 혹은 후렴어구를 주로 나타내는 외래어의 특성상 각 시대에 유입된 새로운 문물과 여흥구 등으로 표출되는 어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많이 등장하는 외래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에는 「지역·지명, 음악·무용, 의류·장신구, 음식, 인물, 건물, 장소, 스포츠, 교통, 인사말」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외래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의 「지역·지명」과 관련된 외래어 중에는 「支郡, 高粱, 上海, 北京, モンゴ-, アジア」 등 중국이나 아시아와 관련된 어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이 대동아제국의 실현을 위해서 朝日新聞 등이 일본의 만주 침략 병사들의 위문 목적으로 만든 『滿洲行進曲』(1931)이나 만주사변의 군가인 『獨立守備隊の歌』(1932), 『討匪行』(1932) 등이 크게 전국적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유럽과 관련된 지명 「パリ, フランス, 歐羅巴, アルプス, ロンドン, ロシア, モンテカルロ, ウェールズ」, 미국과 관련된 지명 「ハワイ, ワシントン, ハレム」, 동남아와 관련된 지명 「シンガポール, ホルネオ」, 스페인과 관련된 지명 「スペイン, バレンシア」 등으로 특히 유럽을 나타내는 어휘의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支郡 (支郡の夜 支郡の夜よ 柳の窓に ランタン揺れて 赤い鳥ご 支郡むすめ「支郡の夜(1938)」)

高粱 (高粱よ 高粱 高粱の 歌を 歌おう 「高粱みのる(1934)」)

上海 (涙ぐんでる 上海の 夢の四馬路の 街の灯 リラの花 散る「上海ブルース

(1939)』)

北京 (花の 北京の灯ともし 頃を わたしや 夢見る 支那娘『紅い睡蓮(1940)』)

モンゴ- (月の出潮は 心が 揺れる 咲くな モンゴ-の 砂漠の風よ『男一匹の唄
(1939)』)

アジア (今日も うち振る 日章旗 無敵の翼 とこしえに 守る アジアに 栄えあれ
『空の 勇士(1939)』)

パリ (わけても忘れぬは パリの都 うるわしの 思い出 モン パリ わがパリ
『モン巴里(1929)』)

フランス (純な あの娘は 仏蘭西(フランス)人形 夢を 見るよな 泣きたいよ
な『青い背広で(1937)』)

欧羅巴 (皇国のため 海を越え 遠き 旅寝の欧羅巴(ヨーロッパ) 君が 究めし戦
術『祖国の護り(1935)』)

アルプス (その節のよさは アルプスの華 娘という 娘は ユーレイティー 『山の
人気者(1933)』)

ロンドン, ワシントン (万里の怒濤 なんのそのゆくぞ ロンドン ワシントン 空だ
空こそ 国賭けた 天下分け目『索敵行(1943)』)

ロシア(雪よ 氷よ 冷たい 風は 北のロシアで 吹けばよい『満洲娘(1938)』)

モンテカルロ (ひと夜さ モンテカルロ 棕櫚繁る 葉がくれに 君が 腕とりてさざ
めきあゆま『モンテカルロの一夜(1934)』)

ウエールズ(海の荒鷲よ 沈む レバルス 沈む プリンス・オブ・ウエールズ『英国
東洋艦隊潰(1941)』)

ハワイ (この 一戦と 働き進む 疾風万里 太平洋 目指すは ハワイ 真珠湾『ハワ
イ大海戦(1941)』)

ハレム (青き水 ダーダネラ わが ハレムに 君を迎え楽しまん 喜び泉のごとく溢
れ『ダーダネラ(1935)』)

シンガポール (故郷恋し 船を見送る からゆきさん シンガポールの黄昏に 泣い
て暮らして 母となる『からゆきさんの唄(1938)』)

ボルネオ (心 ひとつが 身のたより 遠い ボルネオ 旅の果て『からゆきさんの 唄
(1938)』)

スペイン (夏の夜の 灯はゆれ 口ずさむ 恋の小唄に スペインの 若き血は燃ゆ
『タンゴ ローザ(1933)』)

バレンシア (私は 眠る バレンシア 花の しとね 恋を 唄う『バレンシア(1929)』)

「음악·무용」과 관련된 외래어 중에는 「ハモニカ, ラッパ, ギター, バンジョー, レコード, マラカス」 등의 악기를 나타내는 어휘가 특히 많다.

ラッパ (手柄立ずに 死なれよか 進軍 ラッパ きく たびに 臉に 浮かぶ「露営の歌(1937)」)

ギター (なぐさめに ギター をとりて 爪弾けば どこまで 時雨ゆく 秋ぞ「神田小唄(1929)」)

バンジョー (一人旅 バンジョー を 弾こうよ 歌おうよ バンジョーは 陽気な ヴァがボンド「バンジョーで 唄えば(1938)」)

レコード (ジャズは流れる レコード は まわる 赤い灯かげにゃ ボタンが 光る「神田小唄(1929)」)

マラカス (青い 空に 輝く 日よ マラカス 打ち振りうたおうよ「ルンバ タンバ(1939)」)

「쟁의」와 관련된 외래어 「ブルジョア, プロレタリア, スクラム, ストライキ」 등은 전기의 특징으로 당시의 노동쟁의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유행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ブルジョア (おごれる奴らブルジョアの魔の手に同志は戦いたおれ「コミュニストのマルセイエーズ(1930)」)

プロレタリア (おけいは三つだ 小さいながらも プロレタリアだ「里子にやられたおけい(1930)」)

スクラム (血潮は躍る 行こよ行こうよ スクラム組んで 心は朗らか ハイキング「ハイキングの唄(1935)」)

ストライキ (単価切下げば反対 ストライキへと 動く芝浦のゼネラルストライキへ「芝浦(1931)」)

<전기>

지역·지명- 上海, 아시아, 支那(チャイナ), 北京, 파리, 프랑스, 하와이, 라바울, 싱가포르, 스페인, 볼네오, 러시아, 워싱턴, 歐羅巴, 런던, 알프스, 웨일즈, 몽골, 큐바, 몬테카를로,

하렘, 바렌시아

교통- 택시, 버스, 젡크

무용- 댄스, 탱고

꽃·나무- 튜리프, 리라, 아카시아, 포플라

음악·악기- 재즈, 리듬, 폴레로, 세레나데, 룬바, 하모니카, 랍파,
메로디, 기타, 패밀리, 반지오, 레코드, 드레미, 마라카
스⁸⁾

의상·장신구- 한카치, 보탄, 드레스, 넥타이, 리본, 링, 자바,
네그리, 보퍼헤어, 완피스, 로이드, 셔츠, 에메로드

음식- 빵, 코히어, 망고, 티어, 바나나, 밀크

인물- 마드로스, 다이나, 마리, 룬벤, 왕(퀸), 라말치뉴, 니콜라
이, 모보, 댄서, 스타, 프린스, 사사, 보이, 마논레스코,
파비안

인사말- 바이바이, 굿

스포츠- 스키, 하이킹, 슬로프, 텔레마크⁹⁾

쟁의 -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 스크럼, 스트라이키

형용사- 소프트, 칙, 핑크

건물 장소- 빌, 홈, 홀, 호텔, 카페, 텐트, 테라스, 데파트

기타- 나프킨, 발렌, 피크, 필, 포드, 브리지, 심볼, 포-
타블, 마치, 모카, 모단, 모터, 라이트, 랜드셀, 록,
유레이, 에프론, 카터, 고무, 시네마, 재프, 세러, 타
크, 트라피스트, 도아, 바트, 파라솔, 프로페라, 피켈, 파이프,
트리카, 기치라코시, 네온사인, 뉴스, 트레로, 릴, 램
프, 호(쇼로), 클릭, 마스트, 자트, 오라, 하이드,
챗, 유레이, 미사, 피코로, 파라디스, 친라이친라이, 트
레레레, 마니에, 하이드, 캠프, 챗, 샤르메라, 트
레오프, 트럼프

8) 리듬악기의 하나로 야자의 일종인 마라카를 건조하여 만든 남미의 민속악기를 지칭한다.

9) 스키에서 고속회전, 급정지 때 쓰는 회전기술을 지칭한다.

후기에는 전기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 걸쳐 새로운 외래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지명』과 관련된 외래어 중에는 『チャイナタウン, 上海』 등 중국과 관련된 어휘가 전기에 비해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지역 『シベリヤ, ハバロフスク, ブルガリア, バルカン, バイカル』 등이 많아지고 한국의 『木浦』를 비롯하여 『アメリカ, アルジェリア, 스페인, 하와이, ミネソ타, ラバウル, ホノルル』 등의 다양한 지명의 외래어가 유행가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チャイナタウン (桑港のチャイナタウン 夜霧に濡れて 夢紅く『桑港のチャイナタウン(1950)』)

上海 (ハマのキャバレーにいた 風の噂はリル 上海 帰りのリル 리ル『上海帰りの리르(1951)』)

シベリヤ (赤い夕陽が 野末に燃える ここは シベリヤ 北の国『シベリヤ エレジー (1948)』)

ハバロフスク (ハバロフスク 라라라 ハバロフスク 라라라 ハバロフスク 河の流れは ウスリー江『ハバロフスク小唄(1949)』)

ブルガリア (汝がふるさといずこ ここは 遠き ブルガリア ドナウ의 彼方『バル칸의 星の下に(1949)』)

バルカン (輝く バル칸의 星の下にて 幼き日の 思い出 『バル칸의 星の下に(1949)』)

バイカル (豊かなるザ 바이カル의 果てしなき 野山を やつれし旅人が あてもなくさまよう 『바이カル湖のほとり(1948)』)

木浦 (恨んでも恨みきれない 諦められぬ 未練の船唄 木浦의 涙『木浦의 涙(1955)』)

アメリカ (花を 粹なジャンパー의 アメリカ兵의 影を 追うよな 『東京의 花売娘(1946)』)

アルジェリア (ここは 地の果て アルジェリア どうせ カスバ의 夜に 咲く『カスバ의 女(1955)』)

스페인 (この胸 燃えたつ 恋 南の国 스페인의 君は やさしの 薔薇 『南의 薔薇(1948)』)

ハワイ (遥かな潮路 ああ あこがれのハワイ 航路『憧れのハワイ航路(1948)』)
ミネソタ(ココココ コケッコ ココココ コケッコ 私は ミネソタの卵売り 町中で
一番の人気者 『ミネソタの 卵売り(1951)』)
ラバウル(さらばラバウルよ また来るまでは しばし別れの涙が にじむ 『ラバウ
ル小唄(1945)』)
ホノルル(夢も 通うよ あのホノルルの椰子の並木路 ホワイトホテル『憧れのハ
ワイ航路(1948)』)

『음악·무용』과 관련된 외래어가 미국의 영향으로 전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는데 특히, 『タンゴ, ワルツ, 폴카, 브기우기,ジャズ, 블루스, 브기』 등과 같이 그 리듬양식이 일반명사처럼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タンゴ (何故に燃えたつ 赤い靴よ 君を 想うて 躍る タンゴ 『赤い靴のタンゴ
(1950)』)
ワルツ (裾も はずかしうれし 芸者ワルツは 思い出ワルツ『ゲイシャワルツ
(1952)』)
폴카 (君も やれ 폴카 歌って 폴카 歌って 夜のふけるまで 『吹けば飛ぶ
よな(1954)』)
브기우기 (東京브기우기 리ズム우키우키 心ずきずき わくわく 海を 渡りひびく
は 東京브기우기 브기의踊りは 世界の踊り『東京브기우기(1948)』)
ジャズ (ひとりの女のためと 向けた 背中で ジャズが 泣く 『男のブルース
(1956)』)
블루스 (ああ なつかしの블루스は 涙に ぬれてうたう 歌『懐しのブルース
(1948)』)

『음식』과 관련된 『トマト, キャベツ, カルピス, シトロン, コカコーラ, サイダー, チョコレート, チュウインガム』는 전기의 『パン, 코어히어, 망고, 티어, 바나나, 밀크』에 비래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トマト, キャベツ (ポパイのお好きな ホーレン草 トマトに キャベツに 白菜に
きゅうりに 白うり ぼけなす『買物ブギ(1950)』)

칼피스 (칼피스飲んで 칸칸娘 一つグラスに ストロー가二本 初恋の味
『銀座칸칸娘(1949)』)

시트로 (ビールに 正宗 시트로 마っちに 卷煙草<ヤットン節(1951)>,
코카콜라, 초콜레트, 츠어인감(今日 まだ 銀づらか きっと お土産
초콜레트 츠어인감に코카콜라 サーサ 『東京シューシャインボーイ
(1951)』)

사이다 (마っちに 사이다 たばこに仁丹 ややくし ややくし 『買物ブギ
(1950)』)

『인물』을 나타내는 『포파이, 바바라, 마리아, 안나, 보이, 프란체스카, 산타, 신데렐라, 피에로, 아마츄아카메라만, 마드로스, 샌드위치맨, 슈어샤인 보이』 중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산타, 신데렐라』와 전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나타내는 『아마츄아카메라만, 샌드위치맨, 슈어샤인 보이』 등이 나타나 있다.

포파이 (大根 ごぼうに 렌콘 포파이의 오호키나 호렌초 『買物ブギ(1950)』)

바바라 (窓べの花 一つの花 蒼白き 바바라 이とし 『君待てども(1948)』)

마리아 (気高く白き 마리아様 なぐさめ はげまし 『長崎의鐘(1949)』)

안나 (舞姫의 그 이름은 안나 東京 안나 噂의 안나 『東京 안나(1955)』)

보이 (오오 마이 보이 朗らかな 朗らかな 野球小僧 『山の端に月の出るころ
(1951)』)

프란체스카 (バイバイ言っただけなのに 프란체스카의 鐘의 音 『프란
체스카의 鐘(1948)』)

산타 (希望의 家に 산타 마리아의 鐘が鳴る 『長崎의エレジー(1947)』)

신데렐라 (眞珠に かがやく 飾り 窓 うつる 貧しい 신데렐라 かじかむ 『心
의 窓に 灯を(1959)』)

피에로 (公園의 银杏は手品師 老いた 피에로 うすれ陽に 『公園의 手品師(1956)』)

아마츄아카메라만 (僕は 아마츄아카메라만 素敵なカメラを ぶらさけて
可愛い 娘 『ボクは 아마츄아카메라만(1951)』)

마드로스 (ここまで 来たが おとこ泣きした 마드로스가 恋의 나키가ら うずめたか
『錆びたナイフ(1957)』)

샌드위치맨 (泣いちゃいけない 男だよ 샌드위치맨 샌드위치맨

『街のサンドイッチマン(1953)』)

シューシャインボーイ (東京シューシャインボーイ ぼくの好きなあの お嬢さん

『東京シューシャインボーイ(1951)』)

『교통·자동차』와 관련된 외래어에는 『플랫폼, 드라이브, 액셀, 클라クション, 핸들』 등이 있다. 이들은 전기에는 없었던 어휘로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외래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プラットフォーム (一人 たたずむ プラットフォーム さようなら 『赤い ランプの 終列車(1952)』),

ドライブ (踊り子さんに 逢って ドライブしたような 運ちゃん『핸들人生(1955)』)

アクセル (横っちょに 踏んだ アクセル 心意気 『핸들人生(1955)』)

クラクション (さよならと 咽び泣くよな クラクション すきなさき『泣かないで(1958)』)

ハンドル (この ハンドルを なんて 離さしよう『핸들人生(1955)』)

이 밖에 『한국』과 관련된 외래어에는 『オモニ, チョコリ, アリラン, 木浦』¹⁰⁾ 등이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기에 들어 일본유행가에 반영된 것으로 한국에서와 같이 그리움과 슬픔의 의미로 표출하고 있다.

オモニ (恋しい オモニ의 夢を見た 『涙のチャンク(1950)』)

チョコリ (今日は谷 チョコリ いとしや いつ旅 終える 『涙のチャンク(1950)』)

アリラン (泣いちゃいけない 涙を 拭いて仰ぐ アリラン 星 一つ 『アリラン哀歌(1953)』)

木浦 (女ごろの 切なさ 辛さ 名残りの 船唄 木浦의 涙 『木浦의 涙(1955)』)

10) 전기의 한국은 일제 강점기란 특수상황으로 『하이, 야스쿠리, 조토마테, 다마즈키, 모시모시, 미칸, 가켓즈, 가쿠야, 고신키, 나쓰미칸, 네미도리』 등의 일본어가 직접적으로 유행가에 표현되었고, 일본에서는 후기에 들어 『オモニ,チョコリ,阿里ラン,木浦』 등의 한국어가 유행가에 표현되고 있지만 어휘의 종류와 수적인 면에서 한국 유행가에 쓰인 일본어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지역, 지명- 차이나타운, 上海, 불가리아, 호놀룰루, 아메리카, 알제리아, 발칸, 도나우, 시베리아, 몬테넬라, 모로코, 스페인, 하와이, 알프스, 프랑스, 木浦, 바이칼, 미네소타, 하바로프스크, 라바울

음악- 멜로디, 애플뮤직, 드레미파소라시드, 재즈, 카츄어샤, 아로하오에, 세레나데, 블루스, 리듬, 로맨스, 애플, 베사메, 하모니카, 기타, 테이프

무용- 탱고, 댄스, 왈츠, 트로이카, 폴카

음식- 토마토, 캬벳, 칼피스, 코카콜라, 사이더, 초콜릿, 츄잉가ム, 스톱

꽃, 나무- 포플라, 아카시아, 카나리아, 자폰, 리라, 미모자

한국- 오모니, 초콜리, 아리랑, 木浦

스포츠- 피쳐

새로운 직업- 아마츄어카메라맨, 마드로스, 샌드위치맨, 슈어샤인보이, 필름

교통·자동차- 플랫폼, 버스, 드라이브, 가속, 클락션, 핸들

의상·장신구- 브라우스, 실루엣, 드레스, 넥타이, 코트, 마플라, 장갑, 핸드카치, 포켓, 자켓, 슈트, 다이아몬드, 아메지스트(자수정), 백

인물- 포피, 바바라, 마리아, 안나, 보이, 프랑체스카, 산타, 신데렐라, 피에로

인사- 바이바이

장소- 홀, 홈, 호텔, 테라스

기타- 라이터, 샌더, 리더, 피크닉 에켓, 비어, 로맨스, 서비스, 캬피탈, 캬라반, 스마트, 에란제, 오일, 스탠드, 게임, 스윙, 자ングル, 시그널, 츄니스, 자, 버그, 시어, 샹치호코, 시네마, 캬바레, 사인, 란탄, 라

ジオ, マッチ, ボウズ, ヘッド, アイヌ, スイート, ナイトクラブ, ケース,
 マンホール, パーティー, キッド, イヨマンテ, 램프, 벤치, 호레, 라이트,
 アイラブユー, 하이 글라스, 파라다이스, 하이노, 夜来香, 릴

이상과 같이 전후기에 등장한 외래어 중 「지역·지명」을 나타내는 외래어의 경우, 전기의 「支郡, 高梁, 上海, 北京, モンゴ-」 등의 중국과 관련된 어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후기에 들어 감소하면서 러시아와 한국과 관련된 어휘 「シベリヤ, ハバロフスク, ブルガリア, バルカン, バイカル, 木浦」를 비롯하여 미국과 관련된 어휘 「アメリカ, ハワイ, ミネソタ」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음악·무용」의 리듬을 나타내는 외래어의 경우, 전기에는 「タンゴ, ジャズ, ルンバ, ポレロ, セレナーデ」가 후기에는 「ブギウギ, 폴카」 등 당시의 리듬양식이 일반 고유명사처럼 유행가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일본은 전기의 스포츠와 관련된 어휘 「スキー, ハイキング, スロープ, テレマーク」 등과 후기의 자동차와 관련된 어휘 「ドライブ, アクセル, クラクション, ハンドル」 등 경제적인 풍요와 여유를 나타내는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ブルジョア, プロレタリア, スクラム, ストライキ」 등의 「쟁의, 투쟁」과 관련된 어휘는 소외된 노동자의 권리 등 주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의 활발한 민중운동의 양상이 유행가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후기에 등장한 외래어는 서구 문물에 대한 신기함, 동경 등과 함께 전기의 군국주의 사회 이면의 근대화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나오며

본고는 1925년부터 1960년까지의 보편적 정서 및 시대상 등을 고려하여 유행가의 어종(語種)별 고찰을 통해 유행가에 담겨지는 어휘의 언어적인 특성을 고찰해보았다.

유행가의 어종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기와 후기 모두 「고유일본어>한자

어>외래어>혼종어』의 순으로, 고유일본어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잡지와 비교를 통해서도 유행가가 고유일본어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성을 통해 가사의 감정과 의미전달이 쉽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보다 고유 일본어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는 명확한 의미 전달력이 있어서 『滿洲, 希望, 勝利』 등과 같이 개념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키워드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는 소수의 단어로 수많은 고유일본어와 확연히 구별되어져 청자에게 분위기와 의미를 감지하게 하며 표기상의 시각적인 역할을 외래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전후기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자어는 「愛」이고, 그밖에 「僕, 氣, 希望, 未練, 世界, 青春, 本當」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행가가 주로 청춘 남녀 개개인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상감과 추억 등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전기가 후기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大和心, 天皇陛下, 皇国, 尽忠, 武勲, 戰車, 万歳, 日章旗, 銃劍, 軍馬, 無敵, 戰鬪, 勲功, 落下傘」 등을 통한 조국과 천황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서의 승리 등의 계몽적인 내용을 담지한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의미 전달력이 뛰어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당시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래어의 경우, 후기가 전기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는 종전과 미군점령 등으로 인한 외세의 영향 등의 새로운 문물유입으로 기존의 고유일본어와 한자어로는 그 의미를 전부 나타낼 수 없기에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외래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기의 외래어는 일본이 다양한 나라로부터 외래문물의 수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후기 모두 많이 나타나는 외래어로는 「パラダイス」뿐으로, 힘든 현실과 유리된 세계에 대한 믿음과 회구 등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외래어가 한자어에 비해 공통어휘가 적은 까닭은 새로운 개념이나 전문적인 지식, 혹은 후렴어구를 주로 나타내는 외래어의 특성상 각 시대에 유입된 새로운 문물과 여흥구 등으로 표출되는 어휘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후에는 본 연구결과와 함께 고유일본어, 혼종어와의 어종별 분석을 통해 유행가에 표출되는 어휘의 특징과 변화양상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희정(2001)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1945년부터 1960년까지-』 『日本語學研究』 第3輯, 韓國日本語學會, pp.53~70
- _____ (2002), 『日帝強占期 以後의 韓日 兩國 流行歌 語彙의 對照研究』, 『日本語學研究』 第6輯, 韓國日本語學會, pp.31~42
- 佐竹秀雄(1981) 『和語・名づけ・流行歌』 『言語生活』 359, 筑摩書房, pp.49~52
- 千明浩己(1989) 『現代流行歌の語彙研究』 『上越教育大學國語研究』 第三号, 上越教育大學國語教育學會, pp.38~46
- 中野洋(1982) 『流行歌の語彙』 『講座日本語の語彙』, 明治書院, pp.257~307
- 横矢島古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上』, 社会思想社, pp.248~338
- _____ 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中』, 社会思想社, pp.113~286
- _____ 外3(1994) 『新版 日本流行歌史 下』, 社会思想社, pp.113~118
- 西尾 実外2人(1989) 『岩波 國語辭典』, 岩波書店

- ❖ 투고일 : 2007. 12. 31.
- ❖ 심사일 : 2008. 1. 25
- ❖ 심사완료일 : 2008. 2. 5.